



문명을 변화시키는 바.다.의 힘.

동서양 축의 문화적 고.리.

홍은아 | 청아출판사 기획·편집실장

일상생활에 지칠 때나 삶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한다. 그 일탈의 현장에서 자아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기도 한다. 이처럼 여행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삶의 한 부분을 에너지로 채우는 역할을 한다.

2002년 봄, 대학 때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연락을 했다. 어디로 떠나느냐는 질문에 그 친구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라고 대답했고, 다녀와서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길을 떠났다.

아마도 지독히 생활이 무료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현대판 이븐바투타가 되겠다는 그 친구의 의지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이븐바투타 여행기》와 《고대문명교류사》라는 책을 읽고 여행의 꿈을 키워왔던 친구인지라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렇게 친구는 떠나고, 현실주의자인 난 여전히 생활의 굴레 속에서 쳇바퀴 돌 듯 지내고 있을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겐 너무도 익숙하고 친숙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희수 선생님이었다.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의 선생님과 교보문고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선생님은 그 날도 여전히 인문매장에서 책을 보고 계셨다.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 뜻밖의 제안을 하셨다.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이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아에서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그뻘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바다의 실크로드’에 대한 고민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가장 의미를 두고 싶었던 것은 바다의 실크로드가 육상 실크로드 못지않은 동서문명 교류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문명 교류를 논함에 있어 우선으로 꼽는 것이 실크로드이지만, 중앙아시아의 비단 무역로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의 실크로드’가 더욱더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 유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해 온 해양민족이며, 해상국가였다는 사실이다. 해상왕 장보고가 있었고,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 역시 해상세력인 만큼 바다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대륙을 통해서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았겠지만, 바다를 통해서 이미 대식상인이라 일컬어지는 아랍상인들

과 교역을 해왔고, 중국 남부에서 불어오는 바다의 훈풍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륙적 사고에 길들여진 우리는 애써 바다를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책을 꼭 출간해야 하는 이유로 마음 속에 새기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명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써 바다의 실크로드가 갖는 의미였다. 인류문화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축이 쉽 없이 곱들거리며 변화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바다의 실크로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물론 그 길 위에서 때로는 침략도 있었고, 때로는 화합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를 서로에게 전수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서양 두 축은 지금까지도 그 문화적 고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주제들로 바다의 실크로드에 대한 기획안을 썼지만, 사실 그동안 나의 관심도 적잖이 육상 실크로드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직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바다의 실크로드를 동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행을 다녀온 친구로부터 육상 실크로드의 매력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의 실크로드 원고가 틀을 갖추면서 나는 서서히 ‘바다’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바다의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을 해보리라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신라시대 경주를 거쳐 중국에 이르고, 다시 말라카 제국과 홍해를 거쳐 알렉산드리아와 포르투갈에 이르는 긴 항해가 지친 일상에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그곳엔 다양성을 가진 문화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아홉 학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서로 다른 주제들을 안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바다’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진다. 바다를 통해서 생성하고, 발전하고, 소멸해 간 나라와 도시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익히 들어왔던 장보고, 정화, 마르코 폴로도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큰 아쉬움이지만, 책을 읽는 독자라면 ‘바다의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것이 인류문화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해양수산부 앞을 지나가며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이라고 써어진 표어를 본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그 표어가 오늘 따라 유난히 커 보이는 것은 아마도 ‘바다’가, ‘바다의 실크로드’가 그만큼 우리 문화사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본다. ■